

▶ 법회 및 기도 안내 ◀

-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 - 12:30
- 어린이 법회: 일요일 오전 11시
- 청년(선우회) 법회: 일요일 오후 14시
- 어린이 한글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 공지사항 ◀

- 기도입재: 2014년 12월 7일(일) 11시
-기도회향: 2015년 3월 8일(일) 11시
-동참비: 가족 \$100, 영가(돌아가신분)님 \$50
-기도 및 수행 시간: 5:00, 11:00, 20:00
- 불교강좌 안내
-12월 11일 - 3월 5일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12강의)
-12월 12일 - 3월 6일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12강의)
-강의료: \$60(교재포함) -교재: 『불교입문』

▶ 기 도 동 참 (11월23일 - 29일) ◀

- 법등: 원인식 이승연
- 백일기도: 조성열 최종호 이관재 박규환 류명성행 최순용 윤여원 박성만 김현도 수경심(김성례)
- 인등 만등: 원Sara 원Brandon 전유신 전유상 전민지 전호진 전법진 전은수 전경수 전지수
- 천불: 김현도 김기현 김서준
- 대증공양: 남궁연(꽃, 떡), 함영조 이애나(꽃공양)
- 불교대학: 홍인한 홍종현(아란야)

BULTASA BUDDHIST TEMPLE OF CHICAGO
4360 W. MONTROSE AVE., CHICAGO, IL, 60641
T: 773-286-1551, F: 773282-2663
www.bultasa.org

- 회주: 현성스님
- 주지: 성향스님

일요법회

불기 2558(2014)년
11월 30일 제17호



부처님 말씀

오늘부터 아니라, 먼 옛날부터 사람들은 서로 헐고
뜯나니.. 말이 많아도 비방을 받고, 말이 없어도
비방을 받고, 말이 적어도 비방을 받고, 비방 받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다.

비방만 받는 사람, 칭찬만 받는 사람 없었고,
없고 또 없을 것이다.

칭찬도 비방도 속절없나니,

모두가 제 이름과 이익을 위한 것뿐.

욕됨을 참아서 분노(忿)를 이기고,

착함으로서 악을 이겨라.

보시를 줌으로서 인색함을 이기고,

지성으로서 거짓을 이겨라.

속이지 말라, 성내지 말라.

많음을 구해 탐심을 내지 말라,

이 세가지를 법다이 행하면

죽어서 곧 천상에 나리라.

- 법구경 -

8. 애(愛)

(영어: craving, desire, thirst, 산스크리트어: तृष्णा trṣṇā, 팔리어: taṇhā)

『잡아함경』 제12권

제298경 <법설의설경(法說義說經)>에 따르면,
애(愛)는 욕애(欲愛) · 색애(色愛) · 무색애(無色愛)의
3애(愛)를 말한다.

애(愛)는 애착(愛著) · 탐(貪) 또는 집착(執著)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대상에 대한 그릇된 좋아함[欲]을 말하는
것으로 특히 그 대상에 들러붙어 떠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애(愛)의 한자어 문자 그대로의 뜻에는 사랑이라는 뜻이
있으며 12연기설에서 말하는 애(愛)는 사랑과는 다른 것
이다. 애(愛) 즉 탐(貪)은 그 성질이 불선(不善)으로, 본
질적으로 번뇌이다.

이에 비해 자비의 자(慈)는 무진(無瞋)의 마음작용의
본질적 성질이고, 비(悲)는 불해(不害)의 마음작용의 본
질적 성질로서, 둘 다 본질적으로 선(善)이다. 불교에서는
탐(貪)으로서의 애(愛: 갈애, 애착, 집착)는 증(憎: 증오,
미워함)과 표리일체(表裏一體, 둘의 관계(關係)가 밀접
(密接)해서 뗄 수 없음)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즉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애(愛: 갈애, 애착, 집착)가 증(憎: 증오, 미워함)을 낳
기도 하며 반대로 증(憎: 증오, 미워함)이 애(愛: 갈애,
애착, 집착)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자비 또는 사랑으로
서의 애(愛)에는 이러한 면이 없다.

욕애(欲愛) · 색애(色愛) · 무색애(無色愛)는 다음을 뜻
한다.

욕애(欲愛): 욕계의 애, 욕계의 법. 즉 욕계의 사물을
애착하여 그 결과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하는 것,
욕계를 떠나지 못하는 것.

색애(色愛): 색계의 애, 색계의 법. 즉 색계의 사물을 애
착하여 그 결과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하는 것,
색계를 떠나지 못하는 것.

무색애(無色愛): 무색계의 애, 무색계의 법. 즉 무색계의
사물을 애착하여 그 결과 그것에 들러붙어서 떠나지 못
하는 것, 무색계를 떠나지 못하는 것.

『연기경』에서는 애(愛)는 (欲愛) · 색애(色愛) ·
무색애(無色愛)의 3애(三愛)를 뜻한다.

현대의 해석: 애(愛)는 갈애(渴愛)라고 하여 맹목적인
애념(愛念)을 말한다. 고락 등의 감수작용이 강하면 그
만큼 애증(愛憎)의 염(念)도 강해진다. 즉, 쾌락이 크면

그 쾌락을 가지려는 염이 강해지고, 고통이 크면 그 고통
을 피하려는 염이 강해진다.

